



사랑의 손길이 모인 작은 사랑회

강희섭/의학박사, 작은 사랑회 회장

지 하철이나 버스를 올라타면 노약자석이 있다. 노인들이나 임산부들이 외출을 하여 목 — 적지까지 편안하게 앉았다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약자석은 내가 아는 바로는 전세계에 우리 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라고해서 남들에게 기대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공경이 일상화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노약자석을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아마 웃을지도 모르겠다. '얼마나 공경을 안했으면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노약자석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노약자석에는 젊은이나 학생, 아줌마들이 앉아있다가 노인들이 올라타도 조는 척하거나 심지어는 저희들끼리 떠들고 웃기에 정신이 없다.

얼마나 이 사회에 경로사상이 없어졌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 효의 나라,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었는데 말이다. 물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더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필자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한 것은 아니다. 의과 본과 1학년때 아버님이 병환으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필자는 효를 다하지는 못했다. 그때 부모님께 못다한 효를 필자는 갈 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며 봉사하고 있다.

벌써 봉사활동을 한지 12년이 지나 무료진료를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대략 2만 5천여 명 정도나 된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속셈으로 저러지, 저러다 말겠지, 어디 시의원이나 정치에 출마하려나"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

필자가 있는 병원은 강북구와 도봉구의 접점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노인들이 많다. 오고 갈 때 없는 노인, 할 일없이 해매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위해 조그만한 손길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은 사랑회는 지난 '90년 무의탁 노인들의 생계지원과 노인들의 경로잔치를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작은 사랑회는 필자에게 변함없이 꾸준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갑식 목사님, 어렸을 적 고생해서 지수성기한 사람들, 평범한 주부 등 20여 명의 사랑의 손길이 모여진 자원봉사단체이다.

지난 10년간 경로잔치를 지속함으로써 작년에는 강북, 도봉지역의 노인 4,000여 명이 우이동 솔밭에 모이는 성대한 경로잔치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경로잔치때마다 일기예보는 비가 내린다고 해서 항상 우리의 가슴을 좋게 했으나 매번 화창한 날씨를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필자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작은 사랑회를 좀 더 발전시켜 법인 단체로 바뀌 보다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에게 넘겨주고 무의탁노인들을 위해 재할촌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위해 오늘도 나는 노인들을 진료하며 답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끝으로 노인들의 건강에 가장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이야기 한다면 규칙적인 운동, 아직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어다닐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 하루 세 끼 천천히 먹을 것을 지키면 청년 못지않은 건강함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